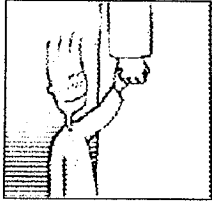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오덕호 목사-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짐승 곁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우리의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폭군에게 쫓겨 먼 나라로 피난했던 아기 예수님은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적막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깃들일 곳이 없었던 예수님은 의지할 곳 없는 우리의 불안함을 알고 계십니다.

목수의 집에 태어나 시골에서 자라난 예수님은 우리의 땀과 고생과 그 피로를 알고 계십니다.

들로 빵을 만들라는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 욕심의 수렁 앞에 선 우리의 위험을 알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외치던 예수님은 우리의 답답함과 절망을 알고 계십니다.

친구들의 떠남과 배신을 체험하신 예수님은 혼자서도 굳세게 살아 보려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하고 호소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악함과 실패의 발걸음을 알고 계십니다.

수건을 동이고 제자의 발을 씻던 예수님은 숨은 봉사와 우리가 지불한 희생을 알고 계십니다.

갈보리 언덕을 홀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남몰래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독일과 경기후 허탈해 하는 골키퍼 앞에서 기도하는 송종국 선수!

"23살의 젊은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 인	'2002년 교회생활'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4권 26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6월 30일
☎520-9464/021-292-1639,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어느 교회 주보광고**

<광고>

『금주간 목사님은 재충전을 위하여 테마여행을 떠납니다. 남도답사를 떠나려고 합니다. 정약용 유배지 강진과 땅끝마을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첫번째 등장하는 코스입니다. 의미있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주일 답사 다녀온 광고>

『테마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남도답사 일번지를 다녀왔습니다. 첫날에는 반남 고분도, 월출산, 영랑 생가,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 땅끝마을, 송호리 해수욕장에서 1박, 다음날에는 미항사, 대흥사, 윤선도의 생가 녹우당, 전라도 광주에서 하룻밤을 잔 후, 3일째는 조선시대 조광조의 제자 양산보가 만든 담양의 소재원, 죽물박물관을 본다음 충북 청풍문화재단지에 옆에 있는 왕건촬영지를 본 다음 서울로 왔습니다. 이번여행을 통해서 느낀점이 많습니다. 대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목회자들의 필수코스처럼 되어버린 성지순례! 그러나 아직까지 웬지 거기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한국 방방곡곡을 성지처럼 다녔던 기억은 떠올리기만해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스케일이 작은 것인지, 우물밖의 세상 맛을 못봐서인지 모르지만 도산서원의 툃마루, 안동 물도리동(하회마을)의 유성룡 생가, 바닷가에 잇대어 스투트 지붕을 이고 사는 동해안 어느 작은 어촌 사람들의 삶이 나를 더 경건하게 합니다.

그곳에 가면 영웅호걸도, 이름 없이 사는 것도 결국 짧은 시간만 이 세상에 머물러야 한다는 교훈을 주워옵니다. 나도 흘러 가는 사람들 무리속의 한 사람일 뿐, 그러니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다짐과 이 짧은 생이기에 예수 잘 믿고 천당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재법 성자다운 생각을 배우게 됩니다.

서울 성내동에 있는 어느 침례교회의 주보를 인터넷에서 보았을 때 성지순례 간다는 광고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깨어 있는 생각에 도 박수를 쳐 주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방학은 참 좋은 기회다  
책 읽을 기회  
특별한 특기 배울 기회  
새벽기도회 참여해 볼 기회

**아버지가 아들에게**  
벗은 옷을 단정하게 해라  
누구나 입을땀 단정하게 한다  
성공한 위인들은  
보이지 않을 때 더 잘한 사람들이다

#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30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17(시 65)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91 장	다 같 이
기 도 Prayer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0: 17-20(신 110)	인 도 자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성가대 찬양 Choir	'엘리아의 하나님'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무엇으로 기뻐하나?'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193장 (마지막절은 일어써서)	다 같 이
* 헌 금 기 도 Offeratory Prayer	(기도후 착석)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 권용일. 이자영 집사 가족 2절: 다같이)	다 같 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 ◆6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안 내 위 원	가족찬송	Tea Time
30	노은숙	윤형권	박병민.이기중	권용일	사카시다.고성일
7	박상옥	이광희	사카시다.최기향	고성일	권용일.김경구
14	김교섭	이금선	양경배.김경숙	김교섭	김반석.김성국
21	박일영	이기중	윤형권.신경화	김경구	김영길.김종건
28	사카시다	이자영	김교섭.정희자	김반석	김종우.김종원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 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닭살돋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00 <수요예배> 저녁 7:30 <아동, 학생> 주일 낮 12시 <청년부> 토 오후 6시

### ◀교 회 소 식▶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의 전반전을 보내며 남은 후반은 더 알차게 익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1. 등록하심을 기뻐합니다

\*김종우, 김선영 집사(2 남녀선교회). 진수. 진아

☎478-4009 ☎ 26 Centorian Dr. Mairangi Bay.

Flower ☎478-5790 ☎ 78 Clyde Rd. Browns Bay.

2. 사랑의 실천 '이삭줍기' 주일: 오늘은 Silver Coin을 모아 드리는 주일입니다.

\*몇일전 신문을 보니 하루 \$1로 사는 사람들이 5억이나 된다더군요. 우리의 작은

Coin 으로 인해 두 어린이(필리핀, 태국)가 배고프지 않게 자랄 것입니다.

3. 피택 향존직 교육: 화요일 저녁 7:30

4. 피택 향존직 임직식(예고): 7월 둘째 주일(14일)이면 우리교회 창립 3주년 주일입니다.

향존직 임직식을 갖겠습니다.

5. 1,2 여선교회 모임: 친교시간에 모임을 갖습니다.

6. 학생부 Camp: 7월 4일(화)-5일(수). 청년부 수련회: 7월 6일(목)-8일(토)

7. 가족과 함께 하는 "응답송"

\*가족끼리 찬송을 부를 때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깨닫습니다.

부부, 가족끼리 찍은 옛사진과 최근의 사진 1장씩 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8. Roger Hill 산부님 이임후 Lemuel Pears 산부님이 부임하셨습니다.

9. 수요예배: 자녀들 방학 기간에 자녀들과 함께 수요예배 드리는 것은 훌륭한 신앙 교육입니다.

### <7월의 교회행사와 모임>

일자	교 회 행 사	모임.회의
7	학생부.청년부 수련회	당회.구역예배(5)
14	교회창립기념주일.임직식	임직자 기도회(12) 믿음의 어머니(16)
21		약속의 아비(23)
28	이삭줍기	남선교회.교사기도회



아무리 귀여운 모습을 해도 늑대는 늑대!  
아무리 멋있고 재미가 있어도 나쁜 것은 나쁜 것.  
유혹에 미혹에 강하세요

### ◀눈물나는 밤엔 유머의 촛불을▶

「열거적인 도로표지판」

경기도 곤지암 근처 국도변에 있는 도로 안내판 .....

"사망사고 많은 곳. 안녕히 가십시오."